07□□□□□_□□□□□□17□ 14. 8. 15. □□ 6:14 Page 185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개교 35주년 기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1회 전국학술대회 비평 및 논문 공모 당선작

07□□□□□_□□□□□□17□ 14. 8. 15. □□ 6:14 Page 187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7호 2014.6. pp.187~210.

장률 감독의 영화 〈두만강〉 연구

—캐릭터와 공간을 중심으로

Study on Film <Dooman River> by Director Zhang Lu

박해울(대상, 단국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과정)

차 례

1. 들어가며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2) 선행연구 검토
2. 본론
1) 감독 소개
2) 영화 〈두만강〉스토리
3) 캐릭터
4) 공간
3. 나가며

1. 들어가며

1) 연구목적 및 방법

백두산 남동쪽 사면에서 발원하여 나진선봉직할시 선봉군 우암리에서 동해로 흐르는 두만강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국경에 접해 있다. '두만강'은 중국에서는 'Tumen river', 'Tuman River'라고 불리며, 러시아에서는 **Туманная**(Tumannaya)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두만강 지역은 고려시대까지는 여진족이 주로 살던 곳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이들을 몰아내고 개척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병영취락이나 개척취락이 형성되었다. 한반도의 제일 북쪽에 위치한 함경도에 기근이 들면, 선조들은 두만강을 넘어 간도 지방으로 이주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역대로 '두만강'을 배

07□□□□□_□□□□□□17□ 14. 8. 15. □□ 6:14 Page 188

〔그림 1〕 두만강의 위치

경으로 한 수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어 왔다. 두만강이 본격적으로 문학의 배경이 된 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다.

김동환의 현대 장편 서사시 「국경의 밤」, 최서해의 소설 「고국」과 「향수」는 두만강 변을 무대로 하는 이야기다.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간도』는 1958년 게재를 시작하여 1967년도에 끝났는데, 주인공 이한복이 두만강의 하중도에서 개간을 하던 시절을 볼 수 있다. 무성 영화는 나운규 감독의 〈두만강을 건너서〉, 대중가요로는 이시우 작곡가의 〈눈물 젖은 두만강〉이 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엔 일본의 폭정에 두만강을 넘어 새로운 땅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고,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이들도 있었다. 한국을 넘어 북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두만강은 한국 영토의 마지막 지역이었다. 북한의 정치 ·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부터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하려는 탈북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두만강은 압록강보다 강폭이 좁고 얕아 탈북자의 탈북 통로로 많이 쓰이고 있다.

2009년에 제작되어 2011년에 한국에서 개봉한 장률 감독의 영화 〈두만강〉도 위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두만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두만강은 이전의 두만강의 의미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살던 선조들은 두만강이 조국의 마지막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두만강〉에서는 두만강이 연변 조선족 마을과 북한 마을을 가르고 있는 선(線)의 의미에 더 가깝다. 즉,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경계선인 것이다. 〈두만강〉은 일제 식민지 시대처럼 추억이 담긴 고향 땅을

07□□□□□_□□□□□□17□ 14. 8. 15. □□ 6:14 Page 189

버리고,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하는 사연이 핵심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열두 살 조선족 소년 창호는 두만강이 보이는 연변의 조선족 마을에 산다. 그는 강 저편에 두고 온 혈연도 없고, 거기에서 살았던 적도 없고, 추억도 없다. 그는 이주를 했던 당사자가 아니다. 하지만 창호의 할아버지를 포함한 조선족 마을 노인 세대들은 이주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마을의 할머니는 두만강 너머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창호의 할아버지는 두만강을 보며 창호에게 자기가 죽거든 두만 강변에 묻어달라고 말할 정도로 강 저편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두만강은 예나 지금이나 흘러가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두만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야기의 내용은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장률 감독의 영화 〈두만강〉(2009)을 캐릭터와 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영화는 성인 남성이 주축이 되지 않는다. 남성 중심인 사회이지만, 남성은 무기력하게 그려진다. 하지만 여성과 노인과 어린이는 극중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때로는 세계와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어린이와 말을 하지 못하는 여성, 과거를 추억하며 사는 노인이 핵심이 되어 전개되는 극이 어떤 양상을 펼치는지, 주제에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강 하나를 사이에 둔 북한과 중국 연변 자치구의 조선족 마을이 극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두 공간을 은유한 조선족 마을의 건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2) 선행연구 검토

장률 감독의 영화들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경계'와 '디아스포라', '마이너리티'를 기반으로 한 논문들을 찾을 수 있었다.

「장률 감독 영화에서의 경계, 마이너리티, 그리고 여성」[1]은 현대중국영화 감독으로서 장률 감독의 입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그의

07□□□□□_□□□□□□17□ 14. 8. 15. □□ 6:14 Page 190

영화인 〈망종〉(2005), 〈중경〉(2007), 〈경계〉(2007), 〈이리〉(2008)를 중심으로 장률 감독의 영화 세계에서 나타난 디아스포라와 마이너리티 연구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2009년에 본 논문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두만강〉에 대한 탐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장뤼(張律)와 영화 「두만강」의 공간 위상」[2]에서는 재중동포인 장률 감독의 정체성과 그의 영화를 연결지었으며, 〈두만강〉에서 나타나는 '두만강'과 '두만강 유역의 경계공간'에 대해 탐구하였다. 또한, 창호와 그의 누나 순희의 행동과 거기에 따른 상징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장률 감독의 영화에 나타난 서발턴 연구」[3]는 장률 영화에 나타난 서발턴을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여성 인물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들의 인물 분석이 나타나 있다. 이는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을 중점에 두고 연구를 전개해나간 논문이다.

「장률 영화의 특성 고찰」[4]은 장률 감독의 영화 속 인물을 '도시적 공간에서의 서발턴'을 '남성 서발턴'과 '여성 서발턴'으로 나누고, '자연적인 공간에서의 디아스포라'를 '탈북'과 '소수자'(민족자치주를 떠난 조선족)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탈/국가의 영화적 공간—〈민족과 운명〉, 〈무산일기〉, 〈두만강〉을 중심으로」[5]는 한국, 중국, 일본만으로 이루어진 동아시아 문화 연구에 문제제기를 한다. '북한'도 동아시아 문화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다. 또한 현재의 국가라는 개념은 과거와는 다르다는 주장을 펼친다. 현재, '국가라는 통치 기구에 의해 억압당하는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족은 여러 나라에 걸쳐 흩어져 있을 뿐'[6]이라는 것이다.

---

1 주진숙 · 홍소인, 「장률 감독 영화에서의 경계, 마이너리티, 그리고 여성」, 『영화연구』, 한국영화학회, 2009.
2 조명기 · 박정희, 「장뤼(張律)와 영화 「두만강」의 공간 위상」, 『中國學硏究』 vol.57, 중국학연구회, 2011.
3 김화, 「장률 영화에 나타난 서발턴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4 김미란, 「장률 영화의 특성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vol.41, 한중인문학회, 2013.
5 김선아, 「탈/국가의 영화적 공간—〈민족과 운명〉, 〈무산일기〉, 〈두만강〉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vol.14,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2.

07□□□□□_□□□□□□17□ 14. 8. 15. □□ 6:14 Page 191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장률 감독의 〈두만강〉 이전 작품과 연계하여 그의 작품에서 나타난 공간과 사회적 약자 캐릭터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 두만강을 포함한 강 유역의 공간 분석이 '경계'라는 의미로 자세히 다루어지는 반면 마을의 인공적인 건축물에 대한 분석은 나와 있지 않았다. 또한 남성에게 억압받는 여성, 어린이, 노인들의 인물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쪽'과 '저쪽'을 잇는 가교로서의 마이너리티에 대한 해석은 찾을 수 없었다. 필자는 영화 〈두만강〉에 나타난 마이너리티인 인물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주목하여 이들이 상징하는 메시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감독 소개

〔그림 2〕 장률 감독

장률 감독은 중국 교포 3세다.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던 할아버지가 만주로 이주한 이래로 가족들이 대를 이어 중국에 살아왔다. 그는 1962년에 길림에서 태어났다. 연변대 중국문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중국문학교수와 소설가로 활동하다가 2004년 영화 〈당시〉로 데뷔하였다.

장률은 어려서부터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으로 거대한 중국이라는 다원공존의 특수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6 앞의 글, 78쪽.

07□□□□□_□□□□□□17□ 14. 8. 15. □□ 6:14 Page 192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7]

〈두만강〉(2009)은 그의 6번째 장편 작품이다. 그는 〈두만강〉으로 제6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부분, 제 8회 파리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과 학생상, 제3회 이스트웨스트국제영화제(러시아) 최우수감독상,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 넷펙상(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제15회 우렌세국제인디영화제(스페인) 감독상을 수상하였다. 영화 〈두만강〉에서 순희 역을 맡은 여배우 '윤란'은 이스트웨스트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2) 영화 <두만강> 스토리

〔그림 3〕 영화 〈두만강〉 포스터

중국 연변과 북한 함경도를 사이에 둔 두만강변에 조선족 마을이 있다. 이곳은 탈북자들이 드나드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며, 트럭으로 탈북자들을 돕는 주민도 있다.

할아버지, 누나 순희와 함께 사는 열두 살 창호는 식량을 구하려고 강을 건너는 북한 소년 정진과 만나 친해지게 된다. 처음에는 다른 마을과의 축구시합에 참가하는 것을 대가로 시작된 그들의 우정은 정진이 강을 여러 번 건너, 함께 놀고, 밥을 먹으면서 깊어지게 된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강을 건너 탈북한 남자 하나가 순희를 겁탈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탈북자들로 인해 식재료를 도둑맞는 피해를 보기도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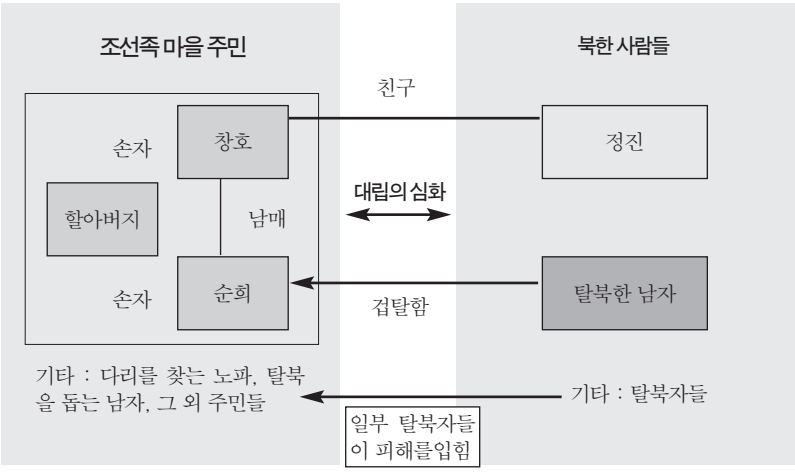
7 김미란, 앞의 글, 284쪽.

07□□□□□_□□□□□□17□ 14. 8. 15. □□ 6:14 Page 193

다. 급기야는 탈북을 돕던 마을의 남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눈감아주었던 탈북자들을 신고하게 되고, 북한 아이들과 조선족 마을 아이들과도 갈등이 생기게 된다. 창호는 마을 친구와 정진을 포함한 북한 아이들을 때린다. 그러나 정진은 창호와의 축구 시합 약속을 위해 강을 넘어 마을로 돌아온다. 창호와 정진은 예정한 대로 축구 시합에 나간다. 하지만 트럭으로 북한 사람들의 탈북을 도운 주민의 아들이 정진을 신고한다. 정진은 공안에 연행되어 가고 그것을 보던 창호는 건물에서 떨어져서 자살한다.

3) 캐릭터

(1) 캐릭터 관계도



〔그림 4〕 영화 〈두만강〉 캐릭터 관계도

07□□□□□_□□□□□□17□ 14. 8. 15. □□ 6:14 Page 194

(2) 주요 캐릭터 소개

① 창호

〔그림 5〕 창호

〔그림 6〕 언 두만강 위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는 창호.

두만강변의 조선족 마을에 사는 열두 살 소년. 할아버지와 말을 하지 못하는 누나와 함께 산다. 할아버지의 일을 돕고, 누나의 수화를 언어로 바꾸어주는 캐릭터이다.

두만강을 건너오는 북한소년 정진과 친구가 된다. 탈북자들이 마을에 해를 입히자 정진을 때리며 화풀이하기도 하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강을 건너오는 정진을 보고 다시 친해진다.

〈두만강〉의 첫 장면에서 창호는 탈북자들이 꽁꽁 언 두만강 위에서 죽는 것을 따라하며 그들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 창호는 어른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한 어린이이므로 죽은 어른들을 따라하면서 이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자 한다. 북한에 혈연도 없고,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 창호에게는 죽은 그들을 따라해 보는 것이 유일한 이해 방법이다. 창호가 탈북자도, 탈북자와 연관된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보는 것이다.

공안에게 잡혀가는 정진을 보고 그는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다. 그의 자살은 일차적으로는 '정진의 체포'에 대한 미안함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렇게만 본다면 장진의 죽음의 동기는 약하다.

좀 더 넓게 생각해보자. 창호는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강의 이쪽과 저쪽을 감시하면서 건너오는 사람들을 잡는 공안과 더 이상 탈북자들을

07□□□□□_□□□□□□17□ 14. 8. 15. □□ 6:14 Page 195

감싸주지 않는 마을 어른들, 즉 어른들에 대해 불신을 느꼈다. 이제 어른들은 강의 이쪽과 저쪽을 나누고, 그 경계를 넘거나 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림 7〕〔그림 6〕이 지나고, '두만강'의 타이틀이 뜬 직후에 이어지는 탈북자들의 시체들

극 후반 직전에 이르기까지 창호는 이쪽과 저쪽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정진과 창호는 조선족 마을의 공간을 누빈다. 폐쇄된 공간을 함께 달리고, 창문을 넘고, 문을 드나든다.

그러나 정진이 공안에 잡혀가면서 창호는 어른이 되면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 세상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어른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어른이 되지 않는다면 한 쪽을 선택하고, 나머지 다른 한 쪽을 미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인 창호는 죽음을 택함으로서 어른이 되는 것을 포기한다.

② 순희

창호의 친 누나이다. 조선족 마을에서 창호와 할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창호와 탈북한 북한 남자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언어 장애가 있어 평소 대화는 수화로 한다. 그러나 결말부에 접어들면 말을 전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녀는 몸에 장애가 있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림 8〕 창호의 누나 순희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북한 남자가 찾아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이에 동의한다. 순

07□□□□□_□□□□□□17□ 14. 8. 15. □□ 6:14 Page 196

희는 이 남자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는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북한 찬양 영상을 보고 이성을 잃어 순희를 겁탈한다. 그녀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낙태를 하려고 병원에 간다. 하지만 막상 수술대에 올라가자 이미 탄생해버린 생명을 죽인다는 생각에 수술이 막 시작되려고 하자 뛰쳐나온다. 그러나 그 후에 아이를 낳아 키우지 않고 다시 병원에 가 낙태를 시도한다.

③ 정진

〔그림 9〕 북한 소년 정진

창호 또래의 소년. 북한에 살고 있지만 동생이 아파 먹을 것을 구하려고 두만강을 건너 조선족 마을로 온다. 그 곳에서 창호를 만나 축구, 우표 수집 등을 통하여 친해진다.

창호와의 축구 약속을 지키려고 두만강을 건너 왔다가, 공안에 잡힌다.

④ 탈북한 남자

〔그림 10〕 탈북한 남자

북한에서 두만강을 넘어 조선족 마을에 오게 된 남자. 창호 할아버지의 호의로 헛간에서 하루 밤을 묵어갈 수 있게 되었다. 타인의 호의에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북한의 지도자 찬양 방송을 보고는 이성을 잃고 순희를 겁탈한다.

⑤ 할머니

창호가 사는 조선족 마을에 사는 할머니. 치매 증상을 보이는 그녀는

07□□□□□_□□□□□□17□ 14. 8. 15. □□ 6:14 Page 197

두만강 건너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곳에서는 이곳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창호가 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할머니를 만나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1〕 할머니

창호 :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할머니 : 강을 건너가려구.

창호 : 강 건너엔 뭐 하러 가십니까?

할머니 : 내가 너희만 할 때 강을 건너왔는데 이제 돌아가려구 그런다.

창호 : 할머니, 그쪽 사람들이 굶어서 거의 다 죽는다는데 거기 가선 뭘 합니까?

할머니 : 너 무슨 말을 하니? 거긴 먹을 게 많다. 내가 더 잘 알지.

할머니는 어릴 적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북한에서 연변으로 왔을 적에 다리를 건너 왔다. 실제로 그 다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억 속에는 그 다리가 남아 있다.

(3) 여성과 어린이 캐릭터

〈두만강〉은 조선족과 탈북자의 대립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주축이 되는 인물은 성인 남자가 아니라, 어른이 되지 않은 어린 소년들과 이방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젊은 여성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다리를 걸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할머니다.

이 영화의 주요 배경인 조선족 마을은 강력한 규율과 가부장제도가 존

07□□□□□_□□□□□□17□ 14. 8. 15. □□ 6:14 Page 198

재하는 곳이다. 불법을 행하다가 걸리면 공안들이 바로 잡아간다. 이장의 말은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로 마을 전체에 퍼져나간다. 그의 말 한마디에 주민들이 모인다. 그의 말은 곧 절대적인 권력이다. 여성인 순희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이 마을에서 말을 하지 못한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이 없이 수동적으로 행동한다. 타인을 도와주는 것은 그녀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타인의 주장에 맞서 싸우거나 반항하지 않는다.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여성을 상징하는 그녀는 자기 의견을 발언할 기회가 없다. 이 세계는 남성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마을과 관련된 여성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순희는 낯선 이에게 식사를 베푼다. 창호의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러 떠났다. 두부 만드는 여인은 매일 콩으로 두부를 만든다. 이 콩은 땅에 심으면 새로운 싹이 나는 씨앗이다. 씨앗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안과 이장을 제외한 마을 남성들은 무력하게 그려진다. 그들은 대낮에 일을 하지 않고 외상 술을 마신다. 마을 상점에 새로 들어온 말린 명태와 그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미 죽은 것 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생명력을 잃은 채 말라간다. 물고기는 남근을 상징하며 따라서 다산, 번식, 재생, 생명의 원천, 바다나 강(생명)을 상징한다.[8] 명태는 생명을 잃고 바짝 말린 상태로 마을에 들어온다. 이것은 마을의 무기력한 남성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호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한국에서 일을 하는 어머니다. 실질적으로 창호와 순희를 보호하는 사람은 할아버지이긴 하지만 남성 노인은 젊은 남성이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성이 적다.

〈두만강〉 이전 장률의 영화에서 나오는 여성들 또한 욕망의 주체가 아닌 욕망의 타자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착취당한다. 이를 통해 그는 중

8 이승훈, 『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사전』, 푸른사상, 2009, 203쪽.

07□□□□□_□□□□□□17□ 14. 8. 15. □□ 6:14 Page 199

층적으로 억압된 소수자의 이야기를 표현한다. 그가 만든 영화 속의 여성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지만 강한 저항력을 발휘하는 반면 남성은 폐쇄적이고 무력하다. 이러한 여성/남성에 대한 서사를 통해 그는 기존의 권력체계와 문화질서를 강하게 비판한다.[9]

어린이와 여성 캐릭터는 현실 세계에서 공격받거나 저지받기 쉬운 마이너리티(minority)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극의 전개를 이끄는 주요 인물로서 활약하고 있다.

창호와 정진은 극의 초반에 만나면서 우정이 점점 깊어진다. 순희는 탈북한 남자에게 겁탈을 당한 후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다. 그녀는 낙태를 하려고 병원에 가서도 탄생한 생명을 죽인다는 것을 고민한다. 카메라는 순희가 먼 곳을 응시하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그녀가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말부에 가서야 들을 수 있다. 말이 곧 권력인 세상에서 여성인 그녀는 말을 하지 못한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에 이곳에 왔으면서도 어릴 때 지냈던 북한을 그리워한다.

우정, 생명에 대한 생각, 그리움 등은 사람의 감성적인 측면이다. 여성과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을 때, 성인 남자 주인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리적 액션을 보여줄 여지가 적다. 하지만 이들을 내세움으로서, 관람객은 이들의 감정선을 따라 삼엄한 국경 지대에서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느낄 수 있다.

① 여성 : 순희와 할머니

순희는 창호와 할아버지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정진이 왔을 때에도, 탈북한 남자가 헛간에서 자고 있을 때에도 집 안으로 불러들여 식사를 차려 준다. 사람에게 먹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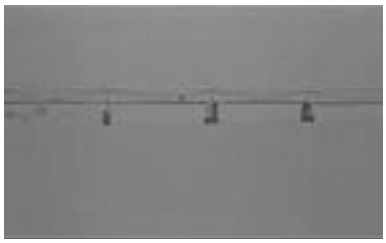
9 조명기 · 박정희, 앞의 글, 622쪽.

07□□□□□_□□□□□□17□ 14. 8. 15. □□ 6:14 Page 200

〔그림 12〕 순희와 할머니

〔그림 13〕 정진과 창호에게 밥을 차려주는 순희

〔그림 14〕 탈북한 남자에게 밥을 차려주는 순희



〔그림 15〕 현실에 없는 다리를 건너가는 할머니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에 그녀는 바로 낙태를 하러 가지 않고 고민 끝에 병원으로 향하고, 수술대에 올라서도 갈등하다가 도망가 버린다. 비록 원치 않는 생명이지만 잉태된 생명을 자의적으로 죽인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갈등을 했다.

그녀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는다. 보통 창호가 순희의 수화를 해석해 다른 사람들에게 뜻을 전해주지만, 그가 없을 때에도 그녀는 탈북한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손짓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려고 한다.

그녀는 언어장애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말을 할 수 있다. 그녀는 언어가 없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어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 언어의 세계와 비언어의 세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녀가 내 오는 음식은 사람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사람이라면 무언가를 먹어야 생존할 수 있다. 음식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사람에게 힘을 준다. 또한 음

07□□□□□_□□□□□□17□ 14. 8. 15. □□ 6:14 Page 201

식은 평화와 불화의 해소와 연관되기도 한다.[10] 언어적 세계와 비언어적 세계를 오갈 수 있는 그녀에게, 음식을 만들고 내오는 행위는 비언어적 세계를 오갈 수 있는 그녀의 특징과 일맥상통한다.

순희가 언어와 비언어적 세계를 오갈 수 있다면, 할머니는 현실과 환상 세계를 오갈 수 있는 캐릭터다. 〈두만강〉의 마지막 장면에서, 할머니는 (예전에는 있었지만) 현재 시점에는 없는 다리를 건너간다. 여러 문화 속에서 다리는 지각할 수 있는 것과 지각을 초월하는 세계의 연결을 상징한다.[11] 할머니는 어릴 때 기억에 남아 있는 북한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② 어린이 : 창호와 장진

처음에 창호와 정진은 축구를 통해 친해진다. 스포츠는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놀이다. 강을 건너 온 정진과 마을 소년인 창호가 친해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공안들이 소년들과 함께 축구를 하기도 한다. 이 때 공안은 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림 16〕 우표 수집한 것을 보는 창호와 정진

〔그림 17〕 함께 축구를 하는 공안과 소년들

창호는 정진이 북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친해지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축구, 우표 수집 등의 놀이를 하면서 친해진다.

그들이 친해지는 데는 별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다. 함께 놀이를 공유하

10 데이비드 폰태너, 최승자 역, 『상징의 비밀』, 문학동네, 1998, 106쪽.
11 이승훈, 앞의 책, 127쪽.

07□□□□□_□□□□□□17□ 14. 8. 15. □□ 6:14 Page 202

〔그림 18〕 축구를 하는 아이들

고, 식사를 함께 하는 데에서 그들의 우정이 생겨난다. 순희가 언어와 비언어의 두 세계를 오가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놀이를 통해 순희가 도달할 수 있는 두 세계를 오갈 수 있다. 특히 창호는 누나의 수화를 언어로 바꾸어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세계(언어적 세계/비언어적 세계)를 오갈 수 있다는 능력을 확연히 보여준다.

극 중의 아이들은 '북한'과 '조선족 마을'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어른 탈북자는 두만강을 건너면서 죽기 일쑤다. 하지만 정진은 잡히지 않고 조선족 마을과 북한을 오간다.

하지만 트럭으로 북한 사람들의 탈북을 돕던 마을 주민의 아들이 장진을 공안에 신고한 후로는 장진은 여느 어른들처럼 두만강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게 된다. 정진이 어른들처럼 공안에 잡혀가는 장면은 어린 시절이 끝났음을 암시한다.

4) 공간

(1) 조선족 마을 건물

〔그림 19〕 두 개의 창(초반)

건물은 보통 벽, 창문,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9〕는 두만강을 건너온 북한 아이들과 조선족 마을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다. 두 개의 창이 하나의 공간을 두 개로 나누고 있다. 왼쪽에는 웅크리

07□□□□□_□□□□□□17□ 14. 8. 15. □□ 6:14 Page 203

고 있는 북한 아이들, 오른쪽에는 그들을 발견한 조선족 마을 아이들이 보인다. 화면상으로는 이 공간이 정확히 두 개로 갈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 두 개의 창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북한과 조선족 마을을 상징한다. 조선족 마을 아이들은 거리낌 없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여 북한 아이들과 대화를 한다. 이들에게는 창이 두 개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림 20〕 폐교 안 쪽의 모습

〔그림 21〕 건물 창문턱에 서 있는 창호

〔그림 22〕 문을 걸어 잠그는 이장의 아내

〔그림 23〕 폐교창틀에 앉아 있는 정진과 창호

아이들은 극 중 조선족 마을에 있는 건물들을 드나든다. 마을 근처에 있는 폐교가 대표적인 공간이다. 폐교에는 창문과 문이 뚫린 복도와 방들이 있다. 그들은 방과 복도를 돌아다닌다. 정진과 창호는 창문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그림 23〕) 창호는 폐교 안쪽 공간에서 창을 통해 밖으로 나가기도 한다. 이와 대조적인 장면이 〔그림 22〕에서 나타난다. 유부남인 조선족 마을 이장이 두부 만드는 여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알게 된 이장의 아내가, 집에 들어오려는 두부 만드는 여인을 자기 집에 들이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버린다. 어른들은 공간과 공간 이동이 쉽지 않다.

07□□□□□_□□□□□□17□ 14. 8. 15. □□ 6:14 Page 204

〔그림 19〕의 창문은 창호가 자살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또 제시된다. 〔그림 24〕에서도 역시 두 개의 창이 나온다. 이 그림에서는 창과 창 사이에 정진을 공안에 신고한 조선족 마을 소년이 눈을 감고 앉아 있다. 소년은 북한에서 온 정진을 신고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그림 24〕 두 개의 창(후반)

한때 소년은 정진과 함께 놀았다. 하지만 장진과 같은 동족인 북한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공안에 잡혀가자, 분노에 겨워 정진을 신고한 것이다. 소년은 북한과 조선족 마을을 상징하는 두 창의 가운데 지점에 위치한다. 북한에서 온 친구 장진은 친구다. 하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가 잡혀 갔고 평화로웠던 마을은 쑥대밭이 되어 버렸다. 소년은 이 두 지점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지 못한다. 이는 〔그림 19〕에서 두 개의 창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던 초반의 상황과는 다르다. 이제 소년은 창과 창 사이에 앉아 한 쪽을 쉽사리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온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2) 계절적 배경 : 겨울

한겨울의 두만강 인근 마을에서 펼쳐지는 〈두만강〉은 실제 마을의 겨울 풍경을 재현하고 있다. 11월부터 2월까지 강이 결빙하는 이 지역의 풍경은 춥고 매서운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25〕 겨울 두만강

〈두만강〉의 처음 장면은 창호가 언 강 위에서, 죽은 탈북자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누워 있는 것으로 시작된다.(〔그림 6〕 참조) 두만강은 실제

07□□□□□_□□□□□□17□ 14. 8. 15. □□ 6:14 Page 205

로 두만강은 11월부터 2월까지 강이 얼어붙는다. 나무와 풀들은 싹과 잎사귀라곤 찾아볼 수 없다. 생명력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얼어붙은 강과 주변의 모습은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 탈북하다 실패한 어른들의 시체가 얼음 위에 그대로 있고, 마을 아이들은 그런 광경이 일상이라는 듯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얼어붙은 강은 탈북자들에게 견고한 길이 되어준다. 그들에게 언 강은 북한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삶의 길이다. 비록 공안에게 잡히지 않는다면 말이다. 겨울의 두만강은 삶과 죽음의 양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3. 나가며

장률 감독의 〈두만강〉은 2009년의 두만강이다. 2세대와 3세대 연변 조선족들에게 두만강 너머 북한 땅은 돌아가야 할 곳도, 그리운 추억이 있는 곳도 아니다. 1세대는 강을 건너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2세대와 3세대는 이주한 땅이 곧 그들의 고향이 되어버렸다.

두만강을 넘는 것은 곧 국경을 넘는 것이기에, 그 강을 넘는 것은 쉽지 않다. 강에는 시체들이 즐비하다. 그것이 두만강의 일상이다. 그러나 〈두만강〉의 북한 소년 정진은 강을 건너 조선족 마을에 갈 수 있다. 극 중 창호를 포함한 어린이들은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순희는 언어와 비언어적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할머니는 환상과 현실을 넘나든다. 이 영화에서 '이쪽'과 '저쪽'을 넘나들 수 있는 인물은 어린이, 여자, 할머니뿐이다.

감독은 환상/현실, (두만강을 사이에 낀) 북한/조선족 마을, 언어/비언어와 같은 두 개의 대립하는 항을 만들고, 그 대립 항을 오갈 수 있는 인물을 영화 전면에 배치하였다. 감독은 현실에서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

07□□□□□_□□□□□□17□ 14. 8. 15. □□ 6:14 Page 206

사이의 화합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창호의 죽음을 통하여 그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메시지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여자의 희생을 지나치게 강요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가진다. 처음 보는 탈북한 남자를 두려워하거나 따지지도 않고 식사를 제공하는 순희는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겁탈을 당한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음에도 그녀는 자기 안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주저한다. 그녀에게는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다. 현실에서 호의를 베풀고 배신을 당하는 경우는 많다. 하지만 〈두만강〉의 순희는 피해입기 위해서 등장한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없다. 그녀가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극 중에서 나타났더라면 피해입기 위해 등장한 캐릭터라는 느낌을 희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장률감독의 차기작에서 여성캐릭터의 변화에 대해 탐구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만강〉은 2009년 두만강 주변에서 북한 사람과 조선족이 갈등을 일으키는 과정을 담은 영화이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대립과 갈등이 있는 세계의 사람들이라면 이 영화의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07□□□□□_□□□□□□17□ 14. 8. 15. □□ 6:14 Page 207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장률, 영화 〈두만강〉, 2009.

2. 단행본

유지나 외 2인, 『2012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영화』, 작가, 2012.

이승훈, 『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사전』, 푸른사상, 2009.

정성일, 『한국영화 비평활극』, 바다출판사, 2010.

데이비드 폰태너, 최승자 역, 『상징의 비밀』, 문학동네, 1998.

3. 논문

김미란, 「장률 영화의 특성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vol.41, 한중인문학회, 2013.

김　화, 「장률 영화에 나타난 서발턴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김선아, 「탈/국가의 영화적 공간—〈민족과 운명〉, 〈무산일기〉, 〈두만강〉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vol.14,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2.

조명기·박정희, 「장뤼(張律)와 영화 「두만강」의 공간 위상」, 『中國學硏究』 vol.57, 중국학연구회, 2011.

주진숙·홍소인, 「장률 감독 영화에서의 경계, 마이너리티, 그리고 여성」, 『영화연구』, 한국영화학회, 2009.

3. 기타자료

두산백과 홈페이지—검색어:두만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4933&cid=200000000&categoryId=200003637)2014.4.2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홈페이지—검색어:두만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44733&cid=1587&categoryId=1587)2014.4.23

07□□□□□_□□□□□□17□ 14. 8. 15. □□ 6:14 Page 208

Abstract

Study on Film <Dooman River> by Director Zhang Lu

—With focus on characters and space

Park, Hae-Wool

Dooman River, which is located on the borderline o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has often appeared in the historical records of Korea. Thus, numerous artworks and films set against the backdrop of Dooman River have been created in South Korea. Since the river was the last area where people about to leave Korea stayed, it is a special place where people said good-bye to others, missed them, felt sad and struggled.

<Dooman River>, a film directed by Zhang Lu in 2009 and released in 2011 in Korea, is another story revolving around the river. However, the movie is different in that the river is a symbol of 'boundary,' rather than the sadness of people.

Whereas the ancestors who liv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elieved it was the last area of their country they stayed before living the country, the film <Dooman River> portrays the river as a borderline between a Korean-Chinese village in Yanbian and North Korean village. In other words, the river separates two different areas as a boundary. Changho, the main character of the film, is a boy who lives in the Korean-Chinese village in Yanbian overlooking the

07□□□□□_□□□□□□17□ 14. 8. 15. □□ 6:14 Page 209

Dooman River. He doesn't have any family member whom he left behind across the river and he has never lived there. He is not an immigrant. Although Dooman River has always stayed the same, the stories it has inspired has changed in each era.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haracters and space of <Dooman River> intensively. In this story, minority groups such as children, women and the elderly are portrayed as key characters. They are the ones who can explore all types of spaces. The children can travel to any area they want to go to. Character Soonhui serves as a liaison that connects the verbal and non-verbal world. The grandmother can transcend between the reality and fantasy.

In the film, the adult residents of Korean-Chinese village lock their doors to prevent outsiders from stepping into their spaces. However, the children freely enter their spaces. No places in the world are off-limits to them; they can enter any space they want to go to.

The director established two opposite spaces, such as reality and fantasy, North Korea and Korean-Chinese village, and verbal and non-verbal world. Those spaces are freely travelled by characters who can cross the borderline. However, the director delivers the message that it is not always easy through the death of Changho.

Although the film is highly regarded in that it presents unique characters and spaces, unlike other films. However, the excessive sacrifice of the female character is not very appealing. Although Soonhui acts like a selfless angel, she got raped. It seems as if her only role is a scapegoat. She doesn't have any desire of her own. If she was portrayed as a strong woman with her own aspirations, her image as a innocent victim would be deprived. Hopefully, the director Zhang Lu will explore new types of female characters in his next films.

07□□□□□_□□□□□□17□ 14. 8. 15. □□ 6:14 Page 210

주제어: 두만강(Dooman River), 장룰(Zhang Lu), 경계(boundary), 조선족(Korean-Chinese), 연변(Yanbian), 마이너리티(minority)

07□□□□□_□□□□□□17□ 14. 8. 15. □□ 6:14 Page 21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14회 국제학술대회 성과 보고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서는 지난 2014년 5월 23일 국립예술자료원(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內)에서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4회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국내 · 외의 북한 문화예술 전공 학자들과 통일부 문화교류담당자가 참석하여 수준 높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광복 70년을 바라보는 오늘, 그 세월의 더께만큼 남북한은 서로 다른 문화와 예술을 전개해왔으며, 이질성과 단절감이라는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 공통의 취향과 감수성을 발견하고 공유의 기억과 문화적 연대감을 되살리는 것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본 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학술대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제1부 '해외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인식'에서는 남북의 문화예술 작품들이 해외에 소개되었거나, 해외의 연구진이 남과 북의 문화예술을 인식하고 있는 양상에 대한 발표의 장이 마련되었다. 캐나다 요크대(York University) Theresa Hyun 교수의 발표 「일제 치하 조선 아동문학 번역과 북한 아동문학 번역」, 백석대학교 박미영 교수의 「북미에서의 한국 시조의 정착과 변용」, 단국대학교 임옥규 교수의 「해외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인식 현황과 과제」, 광운대학교 후지무라 마이 교수의 발표 「1950년대 일본 전위미술에 나타난 저항주의—그 전개와 쇠퇴과정을 중심으로」, 독일 튀빙겐대(University of Tübingen) 한운석 교수의 「독일의 중등교육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으로 채워졌다. 한반도를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외부자의 시선으로 다시 한반도를 바라보는 것은 남북 문화예술

07□□□□□_□□□□□□17□ 14. 8. 15. □□ 6:14 Page 212

교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장이 되었다.

이어진 제2부에서는 주로 남과 북의 문화교류에 대한 학술적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성균관대 김성수 교수는 「언어 공동체의 운명—남북한 문학과 언어 교류의 현황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언어공동체로서의 남북 간의 문화 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민족 문화공동체 형성을 기대하며, 남과 북의 언어교류 현황과 향후 동향을 전망했다. 또한 2014년 현재적 시점에서 남북한 문학과 언어 교류의 재활성을 위한 실천과업을 제안하고 토론하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영정 교수는 「남북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에서 남북 문화예술교류를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현황을 점검했으며, 남북 문화예술교류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남북 문화예술 교류에서 단기적으로는 남북한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개선할 것, 중기적으로는 남북한 문화 당국 사이의 교류 채널을 제도화하여 보다 남과 북의 문화예술이 성장하고 교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다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김영일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이 남북 문화예술 협력 방안 및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실무자의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계만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남북 문화예술 교류 정책의 입안자들과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전개된 교류의 양상과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전망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연구 활동에도 더 없이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